
부 록

2020. 08. 31.

목 차

I. 데크재 안전사고 및 우려 사례 1

II. 데크재 사용 경관 조성사업 예산 낭비 사례 6

III. 데크재 및 조경용 자재 국내 판매 및 유통 현황 10

□ “경기도, 안전위협하는 산책로 목재데크 60건 적발”- 연합뉴스 2020.08.09

- 경기도 내 바닷가, 하천, 공원 등 산책로에 설치된 일부 데크 시설물이 난간 훼손 등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3월~5월 경기도 내 산책로 시설물 안전감찰을 한 결과 기초, 기둥 등 주요 구조부의 설계와 다른 시공 11건, 주요 구조부의 내구성 유지를 위한 관리 소홀 39건, 안전난간 및 목재데크 바닥부 파손 방치 10건 등 총 60건을 적발.
- 특히 해수면과 호수 주변에 설치된 데크 시설의 경우 물이 직접 닿을 수 있는 형태로 시공돼 부식과 침하, 파손에 따른 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가 있었지만, 점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
- 현재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설치된 산책로 데크는 564개로 이 가운데 보행교 188개, 길이 1km 이상 대형 데크 19개 등 유지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조물이 207건 (37%) 있지만, 대부분이 조정시설물로 분류돼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인 것으로 확인.

□ “막혀있는 호동골 행치봉 입구”- 전북도민일보 2020.07.28

- 전주시 호동골 양모장 내 등산로 데크 일부가 부서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행치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 쪽 데크에는 약 30cm 가 넘는 크기의 구멍이 생기고, 멀쩡하게 보이는 주변 목재데크 마저도 조금만 힘을 주어 밟으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으스러질 정도. 비나 눈으로 인해 물을 먹은 목재데크는 쉽게 부식되는 특징이 있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지만 상당 기간 방치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 이용하는 만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된 목재데크가 정작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

□ “다리 난간 파손으로 추락해 장기 피사...보상은 막막”- 제주일보 2020.03.08

-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도로에 있는 한 목재 다리 난간이 부서지면서 이곳을 찾았던 가족 여행객 중 1명이 기념사진을 찍던 중 난간이 부서져 무방비 상태로 3m 아래로 추락하여 장기가 피사하는 등 심한 부상을 당하는 사고 발생.
- 제주도에 따르면 이 목재 다리는 약 7~8년 전에 조성되었고, 사고 발생 약 한달 전 이미 보수작업이 이뤄진 점을 미뤄 부실 공사 의혹도 제기.
- 피해자 아버지 A씨는 개인 부주의가 아닌 시설물 하자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발

생한 사고라 생각하지만, 제주도는 목재다리의 보험이 없어 보상이 힘들다는 답변에 억울함 호소.

□ “자전거 동호인 봄비는 부영-강경 잇는 위험한 자전거길”- 오마이뉴스 2019.11.28

- 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와 석성면을 잇는 자전거길 (목재데크 길 780m)가 설치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 데크 노면 및 안전펜스 곳곳에 심각한 파손 및 부식 현상이 발생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
- 이 목재데크 길은 4대강 사업 중 자전거길 사업의 일부 구간으로 철재와 합성목재를 혼용한 공공시설물.
- 하지만 데크길 설치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용자들의 기대와 달리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부여군은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보수하면서 버티는 실정. 부여군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국비를 지원 받아 보수하고 있다 보니, 전체를 보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든다.” 라고 해명.
- 부여군자전거연합회 관계자는, 노후화로 인해 데크길이 움푹 들어간 곳이 많고, 특히 비가 내리는 날이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 회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데크길을 지나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

□ “조심해 발 빠진다: 비양도 방문객 사고 위험 노출”- 뉴제주일보 2019.11.11

-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천년의 섬이라 불리는 비양도는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지만 부실한 시설물 관리로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협.
- 산책로 바닥으로 쓰이는 목재데크가 파손.
- 일부 구간은 목재데크 3개가 잇달아 들리면서 자칫 잘못하면 발이 빠져 다치거나 물에 젖을 수 있는 상황.
- 비양도를 찾은 방문객들은 저마다 “조심해 발 빠진다.” 또는 “바닥 잘 보고 걸어 위험하다” 등의 말을 하며 주의를 요구.
- 실제로 양모씨(28세)는 휴대폰을 보면서 걷다가 데크가 들린 곳에 발이 빠져 많이 놀랐으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제주시 관계자는 비양도 산책로 파손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유지보수에 반복적으로 예산과 시간이 소비되어 문제라고 지적.

□ “뒤틀림 현상에 곰팡이까지 합성목재 사용 데크 논란”- 충청타임즈 2019.01.2

- 충주지역 자전거길 일부가 파손되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손상된 장소는 주로 합성목재를 이용해 조성한 데크 구간으로 심한 곳은 사람 다리가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매우 커서 안전에 위협.

- 합성목재는 4대강 조성 당시부터 각종 건설에 사용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지고 휘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합성목재는 목재 가루랑 플라스틱 수지를 혼합해 만들어 습기와 부식에 강하다고 홍보됐지만, 오히려 습기를 흡수하지 못해 표면에 곰팡이가 번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지고 휘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포항시 사람 잡는 목재데크”- 경북신문 2018.12.18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목재데크로 만든 버스킹 무대가 파손되면서 20대 여대학원생이 1m 아래로 추락해 팔다리와 흉부를 다치는 사고 발생.
- 목재데크의 경우 염분이나 습기에 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안가나 둘레길에 시설물 바닥재로 시공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 전문가들에 따르면 목재데크의 경우 통상 설치한 지 3~4년이면 보수를 하기 시작해서 5~6년이면 대부분 교체해야 하기에 설치비용보다 보수비용이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지적.
- 분명한 것은 현재대로 목재데크를 과신하다가는 안전사고는 물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게 된다.

□ “완두 구계등 산책로 곳곳 파손...명승 이름 머쓱”- 뉴스1 2018.11.12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있는 완도 ‘구계등’ 산책로의 여러 곳이 심하게 훼손돼 산책로를 따라 걷는 관광객들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
- 전체 산책로 600m 중 400m 이상이 파손돼 성인 발 크기보다 훨씬 큰 구멍이 군데군데 발생. 또한, 심하게 휘거나 뜯어진 데크도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 관광객들을 위협.
- 가장 큰 문제는 설치 2년 후부터 목재데크에서 부스러기가 발생하였고, 2017년부터는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된 것으로 알려짐.
- 자재 구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구멍 뚫린 데크로드, 보행자 안전 구멍”- 경남신문 2018.07.23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세계 요양병원에서 마산제일고등학교까지 300여m 구간의 보행자용 데크로드 곳곳이 파손돼 있어 학생과 환자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
- 보행자용 데크로드 곳곳에 구멍이 나거나 움푹 파인 곳이 5~6개소 되고, 멀쩡하게 보이는 곳도 목재가 낡아 조금만 힘을 주어도 으스러질 정도.
- 이곳 데크로드에는 천연 및 합성목재 데크를 혼합하여 시공하였으나, 결국 오일스테인 등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부식된 것

으로 확인.

□ “경기도 유아체험교육원...뛰놀기 무서운 아이들”- 중앙일보 2017.07.03

- 평택시 행성읍에 위치한 교육원의 안전 문제가 제기
- 유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만큼 가장 안전한 시설이어야 하지만 실상은 유치원생들이 목재데크에 뚫린 구멍에 넘어지거나 일부 교사들은 목재데크의 튀어나온 못과 벌어진 틈에 옷이 끼어 넘어지는 사고 발생하고 유아들에게 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지적.
- 교육원 관계자는 목재데크가 비바람을 맞고 무더위에 노출돼 균열이 가거나 썩는 문제 등이 있어 교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으나, 교체 자재도 발암물질이 검출된 우레탄으로 교체해 더 큰 논란이 예상.

□ “진해 벚꽃 관광객 다리 아래 추락...예견된 사고”- 연합뉴스 2017.04.04

- 전국 최대 봄꽃 축제인 경남 창원 진해군향제를 찾은 50대 관광객 2명이 목재데크 난간에 기대 사진을 촬영하다 갑자기 난간이 무너져 2m 가량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 발생. 추락한 피해자 김씨는 어깨와 팔, 목 통증, 그리고 얼굴 오른쪽 광대뼈 골절상까지 입게 되었다.
- 공원 관리사업소에 따르면 다리는 방부목재 데크로 설치되었으며, 확인결과 곳곳이 갈라져 있고, 작은 힘에도 난간 전체가 흔들리는 등, 많은 관광객이 몰리게 되면 추가 사고 우려가 큰 실정.
- 진해구는 해마다 보수와 보강 등 관리를 해왔다고 해명했지만, 그런데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해명은 하지 못했다.

□ “갑천변 시민안전 땡...나무데크 곳곳 파손”- 중도일보 2016.11.20

- 대전 시민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갑천변 목재데크 시설물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시민과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
- 대전컨벤션센터 앞 하천변에 설치된 목재데크 바닥을 이루는 나무들이 들떠 배부름 현상이 있고, 아예 떨어져 나가 구멍이 생긴 곳도 있음.
- 지역주민 이모씨(31세)는 아들이 인근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울퉁불퉁한 나무에 걸려 넘어질 뻔하고, 놀란 마음과 주변을 둘러봤을 때 목재데크 곳곳에 성인 발크기보단 큰 구멍이 생겨 아래 물이 정도라며 하소연.
- 대전 하천관리사업소는 그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보수하겠다고는 입장만 표명.

□ “봉황대공원 목재데크 훼손 심해 안전사고 우려”- 김해뉴스 2014.11.05

- 김해 봉황대공원 고상 가옥 앞에 설치된 목재데크가 심하게 낡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
- 어른의 발이 빠질 정도의 구멍이 생기고, 목재데크 간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고, 데크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뛰어다닐 때 데크가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 발생.
- 김해시민 김모씨(32세)는 아이에게 자연과 함께 뛰어놀게 방문하였지만, 목재데크가 심하게 훼손돼 있어 아이가 걸려 넘어지거나 발이 빠질까 봐 품에 안고 있음에도 데크가 흔들려 아이를 안고 넘어질까 봐 무섭다고 불안감 표출.
- 그러나 김해시는 전면교체가 필요해 보이나 예산 문제로 난색을 보임.

II

예산낭비 및 안전우려 사례

□ “여수 모사금·신덕 해안 산책로 데크 날림 공사 위험길”- 동부매일신문 2019.12.23

- 여수시는 지난 19년 6월 총사업비 29억7700만 원 (국비: 16억6500만 원과 시비: 13억1200만 원)을 들여 모사금 해수욕장과 신덕 피서지 해안 일원에 연안 해역을 보호와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728m의 산책로 설치 등 연안 정비사업을 완료.
- 하지만 목재데크 바닥이 뜰겨나가고, 튀어나와 보행에 지장을 주고, 난간 또한 갈라지거나, 뜰겨 너털너털하거나, 흔들거려 추락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 일부 구간은 아예 난간이 없어 발을 헛디디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우려.
- 목재데크는 염분이나 습기에 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해안가에 설치하였고, 합성목재는 습기를 흡수하지 못해 곰팡이 번식이 발생하고 또한 빛과 열에 약하여 변색, 뒤틀림과 같은 하자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지적.
- 해안가에서 목재 사용 자체를 지양해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공법이나 소재로 시범 시공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확대하는 방안 필요성 제기.

□ “보수해도 무너지고 흔들리고...접나는 답동 대청도 해안산책로”- 경인일보 2019.08.08

- 답동 해안 산책로 총사업비 13억 원 투입, 길이 1.63km 중 목재 난간 설치 구간은 776m이며, 2010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10년도 채 되지 않은 구조물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실정.
- 목재 난간이 무너져 바닥 위에 쓰러져 있고, 그 사이로 이용객들이 지나가야 하는 불편과 동시에 안전사고 역시 우려되는 상황
- 대청면 주민자치위원장 최광수(66세)씨는 산책로에 바람이 불거나, 파도라도 한번 치면 시설에 문제가 생겨, 산책로는 이미 주민들에게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고, 자신이 봐온 보수 공사만 서너 번이 넘는다고 불만과 함께 혈세 낭비 지적.
-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최창식씨는 목재데크가 해안가의 염분 때문에 내부 부식이 빠르게 발생하기에, 자재품질이나 정확한 시공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

□ “못 뽕족, 구멍 숭숭..보행자 위협하는 목재데크”- 경북매일 2019.05.22

- 포항시는 09년~11년까지 총사업비 64억 원 중 일부를 1.7km에 이르는 목재데크 산책로 조성에 투입. 당시 목재데크 수명이 40년 이상에다 내구성이 우수하다며 안전성과 관리가 용의하다고 강조하며 공사 강행.

- 그러나 10년도 되지 않아 파손되기 시작하면서 매년 3천만원 이상의 혈세가 다시금 투입되어 수시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
- 일대에 설치된 목재데크 곳곳이 뒤틀리고, 일부 구간은 못이 튀어나오고, 성인 주먹만 한 크기의 구멍이 곳곳에 뚫려있어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

□ “우후죽순, 관리영망..부산지역 산책로 목재데크 20km 달해”- 노컷뉴스 2018.11.19

- 부산에 목재데크가 사용된 곳은 약 21km에 이른다.
- 부산 갈맷길 전체 9개 코스 중, 4개 코스 7개 구간 19개소 7,890m 그리고 부산 5개 해수욕장에 설치된 목재데크 면적은 8,297m²에 달한다.
- 최근 3년간 목재데크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약 17억1300만 원이지만 같은 기간 하자와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은 그 비용의 26%에 이르는 약 4억5천만 원이다.
- 또한, 환경 파괴적인 합성목재가 유통되면서 환경오염과 산업폐기물 양산을 지적.
- 목재데크는 초기 설치비용도 많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뒤틀리고 부서지고,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하자보수, 철거, 재시공이 반복되어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
- 때문에 목재데크 사용의 적정성, 설치기준, 관리지침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성 지적.

□ “대전 도심 보행자 없는 산책로...예산낭비 논란”- KBS 2018.05.26.

- 대전 도심에 국비와 시비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조성사업 실시.
- 그러나 심하게 훼손되어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 지자체는 다시금 거액을 들여 보수할 예정이라고 하여 또 다른 혈세 낭비 우려 지적.
- 합성목재로 만든 데크 바닥재가 심하게 파손되어 여기저기 나뒹굴고, 곳곳이 뒤틀려 울퉁불퉁 일어나고, 사람이 빠질 만큼 큰 구멍이 생겨 임시로 덧대 놓은 상황으로 추락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
-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박준식씨는 이 산책로를 다니려고 해도 튀어나오고 구멍이 생겨 바퀴도 걸리고 사고 날 위험이 있어 다니기가 불편하고 걱정스럽다고 호소.
- 자치단체가 2018년 보수 예산 8억 원을 책정했지만, 바닥을 또다시 나무 재질로 교체할 예정이어서 논란 발생.
- 산책로 기능을 살리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수에 앞서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지적 제기.

□ “50년 꼬덕없다더니 10년도 못버틴 목재데크”- 경북매일 2018.01.22.

- 총사업비 약 25억5천만 원 투입, 포항역개터미널에서 두호동 1.2km 구간 목재데크로 만든 자전거길, 산책로, 야외광장 등 시설 설치 사업 실시.

- 당시 포항시는 목재데크는 평균 50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다면 안정성과 관리의 용이함을 강조하여 공사 시행.
- 하지만 설치 9년만에 수분과 해풍의 염분으로 인해 목재데크가 썩고 파손되자 포항시는 재공사에 착수하며 2차적으로 예산이 낭비.
- 익명을 요구한 건설 관계자는 내구성을 떠나 해안가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되었고, 유지 및 보수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시 전체 구간을 뜯어내야 한다면 예산 낭비와 부실행정을 지적.

□ “애물단지 산정호수 수변데크...수십억 들여 고정식 재설치”- 경기일보 2017.11.08

- 2015년 8월 22일 경기일보는 이미 산정호수의 수변 목재데크를 ‘세금 먹는 하마’라는 제목의 기사 보도.
- 2011년 포천시는 예산 12억 원을 투입, 산정호수에 수위조절 부력식 목재데크를 설치하였으나, 더위와 가뭄 등으로 목재데크 파손 및 뒤틀림 현상 발생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원형 복구가 불가능 상태라 혈세 낭비라고 지적.
- 당시 산정리 주민 K씨는 수십억짜리 수위조절용 부력식 데크로드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매년 보수만 하는 혈세 낭비 덩어리라고 비판.
- 이후 책임론에도 2017년 다시금 22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정식 수변 데크 설치 공사를 강행하여 논란.
- 당시 해당 책임자는 재활용 자재 60% 이상이라 예산 낭비성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목재 바닥재가 썩어 폐기하고, 고정 쇠틀도 녹이 슬어 사용 불가였으며, 겨우 데크 난간 부분만 일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

□ “혈세 13억원 투입된 소양강변 생태공원 무용지물”- 오마이뉴스 2017.11.06

- 소양강 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혈세 13억 원을 투입하여 소양강변 공원 조성 및 공원 내 목재데크 산책로 1km 설치.
- 하지만 평균 4년에 한번꼴로 소양감댐 방류로 인하여 훼손 및 유실될 것이 뻔한 곳에 합성목재 제품으로 산책로 만들어 놓아 예산 낭비 논란과 환경오염 우려 지적.
- 춘천시민 한모씨는 이런 곳에 공원을 만들며 수십억 혈세를 퍼부은 것에 분노감이 든다고 표현.
- 춘천환경단체 권희범 의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합성제품을 이용한 시설을 강행해 수질 및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며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고 비판.

□ “설치 5년만에 뜯어내는 제주 데크 산책로...혈세만 줄줄”- 제민일보 2017.10.29

- 제주도는 연안 정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국비와 시비 포함 총사업비 21억 원 이

상을 애월, 상선, 표선, 외도 해안가 총 4곳에 2010~12년까지 순차적으로 목재 데크 산책로 설치.

- 하지만 안전진단 결과, 해풍에 부식되고 붕괴 위험이 있고, 데크 난간 곳곳이 파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태라 데크 산책로 출입을 통제.
- 결국, 5년여 만에 다시금 예산 2억3000만 원을 들여 데크 3곳을 철거하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

□ “도내 데크길 안심하고 걸어도 될까?”- 경남신문 2015.09.07

- 경남도는 2012~15년까지 3년간 18개 시, 군에 747억 원을 투입, 모두 420곳에 목재데크 설치하였고, 이 중 6개 시, 군 157곳에만 300억 원 투입.
- 거제, 의령, 남해, 하동, 산청, 거창 등 6개 시, 군의 대한 특별안전감사를 시행한 결과 2곳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자재 품질 하자가 우려되는 것으로 파악.
- 특히 거제 해안변 산책로 데크에는 빛과 열에 약한 합성목재로 시공하여,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손, 뒤틀림, 변색 등 하자가 발생하여 3차에 걸쳐 약 2억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교체하는 혈세 낭비 발생.
- 남해군 체험공원 역시 합성목재의 수축 및 팽창 현상으로 인해 데크로드 500m 중 300m가량이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파악.
-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데크 공사는 도민 생활과 친숙하지만, 도민에게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라며 안전문제와 혈세 낭비에 대해 지적.

□ “썩고, 내려앉고, 갈라지고...부실투성이 목재데크”- 연합뉴스 2014.11.10

- 대전과 충남 지역 자치단체마다 앞다퉈 설치한 저수지 등 수변 및 공원 주변 산책길의 천연 또는 합성목재 데크 부실 때문에 골치.
- 대전 주민에 따르면 대전 목척교 부근에 합성목재로 만든 데크 산책로에 어른 발크기로 깨지고 내려앉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증언.
-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는 충남 공주시 금벽로에 설치한 데크 길이 총 1.7km 은 공주시 대백제전 축제를 앞두고 사업비 21여억 원을 들여 조성한 목재데크 산책길.
- 설치 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썩고, 내려앉고, 파손되어 보행자의 안전사고 종종 발생. 이에 따라 철거되면서 2차적으로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
- 상당수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주민 휴식 및 여가 공간이 비슷한 상황 이어서 저마 보수를 하느라 골머릴 앓고 있다고 지적.
- 결함이 곳곳에 나타나면서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할 혈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안전성이 떨어져 사고 울도 동시 발생하는 악순환 지적.

Ⅲ 국내 판매 및 유통 현황

출처: (2018)산림청 목재제품의 생산수입유통 시장조사 보고서

2018년 방부목재 가공 "데크재" 및 "조경용" 수요/유통 판매 현황					
1. 2018년방부목재 가공 "데크재" 총 판매량: 127,099 (단위: 개)					
구 분	공 공	수 요 업 체	2 차 가 공	유통 업 체	개 인
데크재 판매량	14,016	23,691	해당없음	43,116	138
비율 (%)	19.50%	33.00%	해당없음	47.00%	0.10%
2. 2018년 방부목재 가공 "조경용 (난간/펜스 등)" 총 판매량: 31,956 (단위: 개)					
구 분	공 공	수 요 업 체	2 차 가 공	유통 업 체	개 인
조경용 판매량	2,162	29,728	해당없음	30	36
비율 (%)	6.80%	93.00%	해당없음	0.10%	0.10%
참고 사항	* 공공분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건축 및 시설물				
	* 수요업체: 건설업체, 인테리어업체, 포장업체, 음식점, 캠핑장 등 수요에 맞는 완제품 형태로 판매				
	* 2차가공: 추가가공을 하는 업체에게 원재료 형태로 판매				
	* 유통업체:마트등단순유통을하는도소매업체에게완제품형태로판매				

2018년 WPC 가공 "데크재"/"조경용"/"건축재" 수요/유통 판매 현황					
1. 2018년 WPC 가공 "데크재" 총 판매량: 6,972 (단위: 개)					
구 분	공 공	수 요 업 체	2 차 가 공	유통 업 체	개 인
데크재 판매량	5,579	1,21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율 (%)	82.60%	17.4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2018년WPC가공"조경용"총판매량: 통계불가 (단위: 개)					
구 분	공 공	수 요 업 체	2 차 가 공	유통 업 체	개 인
조경용 판매량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율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2018년 WPC 가공 "건축재" 총 판매량: 1,336 (단위: 개)					
구 분	공 공	수 요 업 체	2 차 가 공	유통 업 체	개 인
건축재 판매량	1,336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율 (%)	1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참고 사항	* 공공분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건축 및 시설물				
	* 수요업체: 건설업체, 인테리어업체, 포장업체, 음식점, 캠핑장 등 수요에 맞는 완제품 형태로 판매				
	* 2차가공: 추가가공을 하는 업체에게 원재료 형태로 판매				
	* 유통업체:마트등단순유통을하는도소매업체에게완제품형태로판매				

□ 2018년도 기준 산림청의 생산수입유통 보고서에 따르면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WPC)는 방부목 데크재에 비해 공공분야 판매 유통이 80% 이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